

인천공항 가치점프 4기

# 우리의 가치, 우리의 성장 이야기





**발행일** : 2025년 02월 11일

**발행인** : 인천국제공항공사 ESG경영처 ESG경영팀

**발행처** : 인천공항 가치점프 운영 사무국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숲길 51 5층
- 홈페이지 : [www.value-jump.org](http://www.value-jump.org)
- 메일 : [info@value-jump.org](mailto:info@value-jump.org)
- 연락처 : 070-4241-0501

**디자인** : 달담디자인스튜디오

\*인천공항 가치점프 수기집에 수록된 모든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수기집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발행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들어가는 말

한 장 한 장 이 수기집을 넘기다 보면, 지난 1년간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한 편의 이야기처럼 떠오릅니다. 설렘 속에서 내디딘 첫걸음, 때로는 벅찼던 도전, 그리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 걸음씩 나아갔던 시간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만의 빛나는 여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수기집에는 장학생과 청소년들이 함께 나눈 마음과 열정, 그리고 성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노력이 모여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수기집이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작은 쉼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따듯한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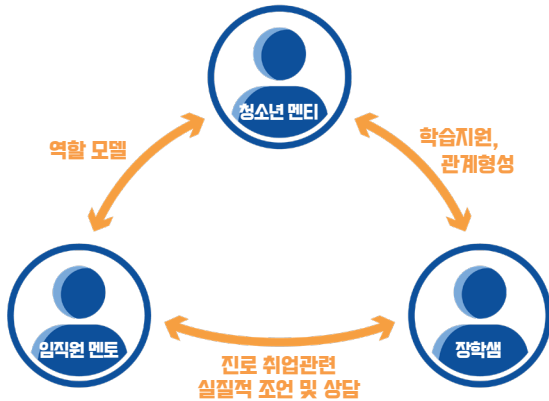
인천공항 가치점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님과 임직원 분들을 비롯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운영 사무국

# 프로그램 소개

## 인천공항 가치점프란?



인천, 경기 지역 이주배경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건강한 지역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삼각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 주최 및 주관



## 활동 기간

2024년 4월 ~ 2025년 1월 (10개월) / 매주 6시간, 43주 활동

## 활동 장학생

100명

## 청소년

369명 (이주배경 청소년 비율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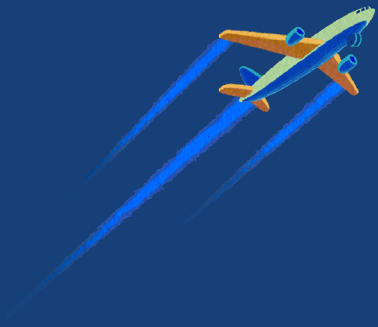
## 학습센터

25개 학습센터 (인천 14개소, 경기 11개소)

## 인천공항 가치점프 4기가 날아온 길



# 인천공항 가치점프 4기 장학생들의 이야기



# 배움에 있는 가치

#보람

#성장

#활력

2024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0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힘든 적도 있었지만 매 순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센터에서 함께 열심히 멘토링을 한 동료 장학생 언니들과 센터 선생님과의 좋은 인연 만들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10개월 간의 여정이 저를 더욱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다현**  
간석지역아동센터



# 경험 속에서 얻은 성장과 소중한 추억

#성장

#에너지

#보람

#추억

**조아현**

간석지역아동센터

장기간의 교육 봉사로 과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10개월 동안 덕분에 소소한 행복도 얻고 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특히, 아이들과의 시간을 통해 나의 유년 시절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아이들을 통해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받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나를 통해 많은 변화를 겪고 좋은 추억을 쌓았다고 생각하니 뿌듯함 그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부족한 멘토였지만, 점점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담당 멘티 친구들이 어린 초등학생들이어서 학습적인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이나 추억이 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친구들과 싸우면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사과할 줄 아는 아이들, 고민 상담을 스스로없이 하는 친구들, 매번 짜증이 많던 친구가 점점 선해지는데 걸 보며 변화하는 모습을 느꼈다. 조금 더 편한 멘토가 되기 위해 때론 친구처럼, 의지할 수 있는 언니처럼 다가가니 서로 정이 깊어지고, 멘티들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갈 수 있었다. 단순히 멘토로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싶을 정도로 행복한 경험 이었고, 같은 센터에서 활동했던 장학생들과도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내며 좋은 인연을 얻어서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되었다.



# 2024 강화군가족센터 아이들과 함께

#성장  
#이해  
#함께

권민주  
강화군가족센터

강화군 가족센터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한 멘토링 활동은 나에게 소중한 경험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다.

멘토링 활동을 하며 제일 변화된 것은, 나 하나쯤은 무관심해도 괜찮다는 태도인 것 같다.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단순히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멘토링 시간 속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며 성장하고 싶다. 강화군 가족센터 아이들도 먼 훗날 사회에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서 다시 만나고 싶다.





# 힐링캠프

#힐링

#캠프

#뿌듯함

#교감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의 삶을 산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 센터에 다니면서 나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나눔, 교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면이 많이 보여서 그 자체로 힐링이었다. 우리 센터에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아 학습지도보다는 정서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육체적 활동과 대화를 통해서 소통과 교감을 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센터까지 2시간 반이 걸리는 먼 길이었지만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가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본인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권혁남**  
강화군가족센터



# 강화군 가족센터

#행복

#즐거움

#성장

**허성훈**  
강화군가족센터

10개월 동안 강화군 가족센터에 방문하여 멘토링 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순수함과 직설적인 표현들은 나에게 솔직함을 알려주었고, 먼 곳에서 매주 센터를 방문하는 아이들은 나에게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 배움을 즐거워하는 아이를 통해 나 또한 배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멘티들에게 가르쳐 준 것보다 멘티들이 나에게 가르침을 준 것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10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것이 너무 소중하다.

항상 잘 웃는 아이들이 그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비현실적이지만 힘들지 않고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가치점프에서 배움의 선순환을 실현하다!

#함께

#성장

#선택

#행복

#자아실현

**김다인**

꿈나무지역아동센터(남동구)

‘삼인행 필유아사(三人行 必有我師)’라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의미이며, 어렸을 때 아빠께서 자주 해주신 말씀이라 현재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면접에서 이 성어를 언급했던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이, 배경, 국적 그 무엇과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본받을 점은 있기에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푼 기대감을 안고 활동하면서 아이들에게서 순수함과 활기, 진정성을 배우고, 다른 장학생들과 책임과 고민을 함께하며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임직원 멘토님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현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0개월 동안 활동하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는 것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고, 저 스스로도 많은 부분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함께 성장하는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 남동구 꿈나무 지역아동센터에게

#회복

#행복

#책임감

#성장

매주 두세 번씩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는 것이 생각보다 빠듯하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막상 아이들과 소통하며 수업을 하다 보면 오히려 저 자신이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고, 힘들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 또한 행복을 느끼며 활동에 임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책임감도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4기로 활동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멘토와 멘티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느끼며 앞으로도 배움을 나누는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

**박채원**

꿈나무지역아동센터(남동구)



# 인내로 꽃피운 큰 성장의 기록

#인내

#책임감

#성장

#뿌듯함

합격 문자를 받고 4월에 센터에서 첫 오티를 진행했던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수기를 작성해야 한다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약 10개월간의 힘들고도 뿌듯했던 활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1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내적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신 센터 선생님들과 아이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가치점프 사무국 담당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활동을 통해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과 소중한 경험들은 비록 활동이 끝났어도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센터로 향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던 고군분투의 순간들은 어쩌면 다시 찾아볼 수 없겠지만, 매주 마주했던 경험들은 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단순한 교육 봉사를 넘어 아이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또한 가치점프 장학샘에 지원했던 저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기억들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값진 경험을 선물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예지**

꿈나무지역아동센터(남동구)

# 인천공항 가치점프와 특별했던 시간

#성장

#꾸준함

#성실

#열정

2024년 3월 31일, 인천공항 연수원에서 진행된 발대식은 인천공항 가치점프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센터에서 온 장학생들과의 만남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배움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 2024년 8월, 꿈나무지역아동센터(남동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과 친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고, 이를 위해 함께 롤러장에 가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롯데월드를 방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일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은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저는 센터에서 진행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아이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살롱 드 가치점프, 가치점프 진로박람회 등 여러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결과, 아이들과의 유대감이 한층 더 깊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니**

꿈나무지역아동센터(남동구)

# 멘토, 멘티가 되어 겪은 소중한 경험

#즐거움

#성장

#시원섭섭

가치점프를 시작할 때는 내가 먼저 멘티에게 다가가야 하는 걸 알지만 수줍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멘티가 오히려 먼저 다가와 주었다. 이러한 시간을 기점으로 멘티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멘티들이 생각하는 나와 의 벽도 사라져가는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를 기점으로 멘티들과 수업시간에 사소한 장난도 많이 치게 되면서 보다 친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 멘토링을 멘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 즉, 아무것도 얻어가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멘티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가치점프를 처음 지원하게 된 동기도 상기되면서 더욱 가치점프에 열심히 임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내가 멘토가 되는 멘토링과 진로 박람회 등 경험을 통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하다 보니 나와는 다른 여러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과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통해 가치점프를 하기 전보다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고, 가치점프를 하기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현서**

꿈나무지역아동센터(남동구)



# 함께 성장한 시간, 가치 있는 점프!

#성장  
#나눔  
#꾸준함  
#도전  
#보람

**최지욱**

꿈나무지역아동센터(남동구)

처음 꿈나무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시작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아이들과 만나게 될지 궁금하고 설레는 마음이 컸다. 그리고 직접 아이들을 만나보니, 각자 다른 개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순수하고 반짝이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마치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저마다의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매주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느낀 점은, 교육봉사는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아이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배움이었다. 어떤 날은 내가 준비한 내용보다 아이들의 한마디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맞춰 눈높이를 낮추고, 공감하며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몸소 경험했다.

돌이켜보면, 이 여정은 아이들만 성장한 시간이 아니었다. 나 역시 함께 배우고, 함께 자랐다. 아이들의 작은 성취에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서툴러도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으며, 나도 더 좋은 멘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6개월 동안 쌓아온 소중한 기억들이 앞으로도 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 시간을 통해 '진짜 교육'이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다.





# 새싹이 나무가 되는 꿈, 꿈나무에서의 10개월

#유대감

#성장

#가족

#웃음

#행복

**박건우**

꿈나무지역아동센터(미추홀구)

자라나는 새싹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꿈나무 아이들의 거름이 되고자 노력한 박건우입니다. 처음 센터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 느꼈던 감정은, '반가움'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다가와 장난을 걸고, 같이 놀자고 끌어당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린아이들의 환영식이 아니었나 돌아켜봅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며 한글을 읽지 못하는 아이의 전담 멘토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가 시작되면 싫증이 난다며 도망가는 게 특기였던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갖게 된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나를 거름 삼아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학생에게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공부를 할 때 무엇을 하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결국 한글을 못 읽던 그 아이는, 제가 센터를 떠날 땐 동화책을 읽고,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전, 그 성장이 제가 잘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새싹에서 어린 나무로 자라난 건 그 아이의 성장이고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아이가 성장을 하는 데에 있어 '나'라는 거름이 원동력, 시발점이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꿈나무의 모든 아이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저를 조금이나마 거름 삼아 멋진 나무로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건우쌤!'하며 반겨주던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리웁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장의 기쁨

#꾸준함

#열정

#성장

작년 한 해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의 소통을 통해 저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맺었고, 아이들의 성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박민재**

꿈나무지역아동센터(미추홀구)

# 함박마을에서의 함박웃음 :)

#함께성장

#함박웃음

#추억

저질러 버렸다. 이미 20학점이나 듣고 있는데. 학교에서 한 시간 거리인데. 그런데 너무 하고 싶어서 심장이 쿵쾅땀다. 안 하면 오히려 후회할 것 같았다. 그래서 지원했다. 그리고 내 예상이 맞았다.

2024년을 가치점프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내 꿈을 구체화 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센터로 향할 때는 설렘을 가득 안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는 뿌듯함을 품을 수 있어, 이동하는 시간도 좋았다. 우연히 생일 전날에 내 생일을 묻는 바람에 바로 다음 수업 때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준 일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쌤'이 무엇인지 몰라서 내 이야기에 심드렁한 반응을 보이다가, 뜻을 알려주니 갑자기 관심을 보이던 모습도 떠오른다. 더빙이라 걱정하던 영화를 다 이해하고, 대본을 참고하여 혼자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던 함박마을에서, 디아나, 올리아나, 마르크, 한나쌤, 지영쌤, 수민쌤, 주하쌤, 그리고 김우현 팀장님과 함께해서 늘 함박웃음을 지으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4기 활동은 끝이 났지만, 우리의 인연은 끝이 아니기에, 외롭고 지칠 때 여러분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버티겠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Я люблю тебя♥”



**김경은**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 나의 선생님 일지

#선생님

#함께

#도전

#성장

“선생님 덕분에 붙었어요!”

제가 10개월 동안 수업을 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저는 멘토링 초창기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내가 멘티에게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니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걱정이 앞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제가 멘티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점차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익숙해지고 멘티에게 알맞은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기본 수업에 익숙해질 때쯤, 멘티가 새로운 수업을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진학을 위한 면접 준비였습니다. 면접 자체도 쉽지 않은 수업이었지만, ‘진학’을 위한 면접이라는 것에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주제인 만큼, 멘티의 참여도 중요했고 저의 준비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전 수업을 통해서 제가 멘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함께 도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멘티와 함께 약 2개월 동안 지원서 작성부터 모의 면접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면접을 준비하였고, 결국 합격이라는 감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멘티에게 면접 결과를 전달받고 감사 인사를 읽었던 그 마음이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어색해했던 제가 무색할 정도로, 저 자신이 뿌듯했고 잘 따라와 준 멘티가 대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같이 성장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마음 깊숙이 간직하겠습니다.



서지영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 함께한 여정, 나의 성장 : 첫 대외활동 이야기

#발전

#즐거움

#도전

#성장

첫 대외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합격자로 중간에 합류하게 되어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되긴 했지만, 센터장님과 동료 선생님들 덕분에 빠르게 적응하여 편안한 분위기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 착하고 잘 따라줘서 항상 수업이 즐거웠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8개월 동안의 활동을 저에게 큰 발전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제가 가르치는 내용이 그들에게 어떻게 와닿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당 과목이 수학이라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기 어려웠지만, 수업을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이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가치점프 활동에서 느낀 즐거움과 도전 정신을 잊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단법인 점프,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수민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 10개월의 상호성장, 앞으로의 더 멋진 변화

#변화

#성장

#추억

#뿌듯함

**황주하**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상호 성장하는 시간]

10개월간의 가치점프 멘토링 활동이 끝나갈 때가 되니 처음의 걱정과 설레임이 가득했던 마음이 떠오른다. 아이들과 열심히 한국어 공부한 것, 박물관이나 영화관에 간 것, 그리고 수원화성 나들이 다녀온 것도 생각이 난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이전엔 잘 몰랐던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도 느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도 겁내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아이들과 열심히 준비하여 다녀온 해외탐방을 통해 소중한 기억을 많이 만들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었다. 이렇듯 활동을 통해 나 또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잊지 못할 기억이다.

[앞으로의 또 다른 성장을 기대하며]

아이들과 진로 진학 이야기처럼 진지한 이야기부터 급식 메뉴나 좋아 하는 노래와 같이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많이 정이 들었는데 벌써 헤어질 시간이라니 한동안은 섭섭한 마음이 컸다. 그러나 그동안 아이들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을 보니 앞으로 더욱 멋지게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제는 아쉬운 마음보다 앞으로도 센터에 들러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아이들의 자라나는 눈부신 성장을 지켜 보고 싶은 기대감이 더 크다. 그리고 나의 성장도!



# 사랑하는 모두들, 잠시만 안녕!

#사랑

#행복

#성장

#믿음

#나눔

**윤수민**  
부천새날학교

맑고 순수한 눈빛으로 예쁜 마음을 전해주던 새날학교 아이들, 저희 장학생들을 항상 존중하고 위해주시던 새날학교 선생님들과 사무국 임직원분들, 따뜻한 격려로 함께해 준 동료 장학생들까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였기에 더욱 소중했던 10개월의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따뜻했던 순간들이었기에 시원한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더 큼니다. 하지만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사랑과 믿음의 가치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한 걸음 성장하다 보면 모두들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사회인 멘토가 되어 또 한 번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날을 고대하며, 인천공항 가치점프 잠시만 안녕! :) )



# B와 D 사이의 C!

#성장의여정

#소통의다리

#같이의가치

인생은 B와 D 사이에 놓인 수많은 C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인천 공항 가치점프 역시 저에게 또 하나의 C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마무리된 지금, 지난 여정의 순간들은 저에게 특별한 C가 되었답니다. 처음 자모음을 배우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 정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번역기 앱 없이는 소통이 불가능했던 우리는 어느덧 파파고 없이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물론 어려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 동료 장학생들, 센터 선생님들 모두가 서로의 힘이 되어 결국 함께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꺼내 먹을 수 있는 큰 추억과 자양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모든 장학생 분들의 큰 성공의 경험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서린**  
부천새날학교





# 나 또한 성장하는 시간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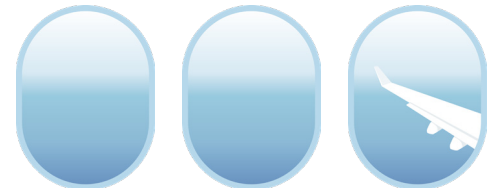
#라포

#아쉬움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해하고 어떻게 멘토링을 진행해야 할지 우왕좌왕 했던 나를 이끌어준 건 오히려 아이들이었다. 공부 진도만 나가서 지루하고 힘든 시간에 나 스스로도 웃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준 것 또한 아이들이었다. 가치점프 멘토링의 장학생은 나지만 오히려 내가 아이들에게서 밝은 에너지와 활기찬 기운을 얻어 일주일을 살아갈 원동력을 받았던 듯하다. 즐거운 멘토링을 함께 만들어주며 공부도 열심히 한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고 기특하다는 생각뿐이다. 더 길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다! 이 약 열 달간의 추억이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간직 되었으면 한다.

**김송이**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 가치점프와 함께한 성장의 날들

#성장

#뿌듯함

#협력

#도전

#변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하는 가치점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말 뜻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변화했습니다. 센터에서 멘토링을 진행하며,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색하고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할까?' 라는 고민 속에서 허덕이면서 한편으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기도 하면서 스스로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어디가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과 경험들이 쌓여서 마지막에는 제 스스로가 많이 능숙해지고 성숙해지면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서 멘토링 친구들과의 단합은 물론,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도 크게 발전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외로 가치점프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알게되었고 다른 인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로를 설계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갔으며,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이후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워크숍과 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이 끝난 후에는 작은 목표들을 성취해 나가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가치점프를 통해 배운 것들은 앞으로의 도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발판 삼아 더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박성준**

부천시민연합 부설 지역아동센터 도깨비



# 우리가 만들어가는 낭랑

#지지

#동행

#대입

**김윤**  
사우지역아동센터

낭랑 18세, 낙엽만 굴러가도 웃을 나이, 다시 말해 청춘이란 단어 아래 우리의 학창 시절이 함의된다. 알다시피, 청춘의 대가는 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12년의 시간은 어른이 되기 위한 계단이지만, 혹자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단계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간은 공평하지만 기회는 한없이 불공평하다. 교육에서, 문화에서, 정서, 진학, 나아가 진로에서까지 아무리 출발선이 같아도 뛰는 사람과 자동차를 탄 사람의 경주는 다르다. 그래서 인천공항 가치 점프에 참여했다. 나도 그 경주를 달려 본 사람으로서 자동차까진 아니어도 자전거는 만들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미친 듯이 굴려서 자동차를 앞서 나가는 법을 함께 배우고 싶어서 참여했다.

교육 봉사는 오래 해왔지만, 고등학생의 멘토로는 처음이라 고민이 많았다. 고등학교 수준의 학업을 가르치려면 몇 배의 준비가 필요했고, 대입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많지 않았다. 빠른 진도, 많은 과목, 어려운 난도에도 잘 따라와 준 멘티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지금은 고등학생 멘티를 만나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학업 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덕에 내가 꿈꿨던 교육, 문화, 정서, 진학, 진로라는 모든 경주에서 함께할 자전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사회 속에서 18세는 낭랑해야 한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인천공항 가치점프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



# 사우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한 2024

#감사함

#연결

#품

2024년 가장 잘한 일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 없이 사우지역아동센터에서의 교육 봉사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우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아이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반경을 넓혀주고, 저에게 기대오는 아이들의 마음으로부터 많은 힘을 얻었던 소중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 전공자로서 평소 아이들을 대하는 일을 많이 해왔지만, 아이들의 내밀한 일상을 같이 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일상을 함께 하며 아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더욱 가까이 접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사우지역아동센터에서의 경험은 감사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제게 보내주는 마음을 통해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얻곤 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돌봄과 교육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고 경험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신 인천공항x가치점프와,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었던 모든 장학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경험을 떠올리며 더욱 너그럽고 따뜻한 품을 지닌 어른으로, 또 교육자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운**

사우지역아동센터

# 또다른 행복을 찾는 과정

#성장

#행복

#기쁨



**주성훈**

사우지역아동센터

세상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적에 필요해서  
또 어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등 다른 목적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지원한  
이유는 300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너무 탐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지금은 저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부끄럽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교육을 끝내고 센터로 갔을 때 아이들의 학업의지가 굉장히 낮아  
수업을 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검정고시 출신인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의 니즈조차 파악하기 어려웠습  
니다. 그렇기에 초반에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많이 되뇌었던 것 같  
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과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들의 삶으로 스며들었고 그 결과 멘티로써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알파벳을 모르던 친구를 지금은 간단한 회화가 가능할  
정도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본인의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불안해하던  
친구에겐 동네 형 같은 친근한 이야기로 따뜻하게 상담도 같이 하며  
아이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활동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활동을 하며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아이들의 성장을 보는 것이 너무 즐겁고 활동을 1년  
동안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활동에 임하던  
마음가짐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친구들에게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행복을 찾고 싶다면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강력히 추천 드립  
니다!

# 배움과 성장의 시간들

#배움

#성장

#감사

그동안 가치점프 4기 장학생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학교생활과 알바, 그리고 4기 활동을 병행하느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센터에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유연하게 보충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아이들을 학습 지도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닌, 저 역시 아이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이들과의 소통과 적응에 있어서 어색하고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제가 마음을 열고 노력하는 만큼 더 다가와 주는 아이들 덕분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센터에 방문하는 시간이 마냥 수고스럽지만은 않은, 기대되고 설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 또한 제가 올해 활동했던 센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다른 입장이 되어 다시 센터에 방문해 보니, 그 시절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한 마음이 다시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활동은 아이들과 함께 저 또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게 많은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런 뜻깊은 기회를 주신 가치점프 측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나람**  
서곶지역아동센터



# 또 한번의 성장

#새로운목표

#동기부여

#활력소

센터 아이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여러 추억을 쌓은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부분 아쉬웠던 기억들이 좀 더 마음에 남는거 같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학생이었지만 아이들을 지도하며 오히려 스스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것 같아 정말 보람차고 제 인생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되어 앞으로 제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되고 정말 인상 깊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점을 잘 따라준 우리 서쪽 지역 아동센터 학생들을 평생 잊지 않으며 어디에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러 기회를 가질수 있었던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지원**

서곶지역아동센터



# 가치점프, 우리 같이 점프

#우리들의교실

#따뜻함

#배움

**김시은**  
아이원지역아동센터

가치점프는 제게 무언가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준 활동입니다. '사랑'이라는 가치는 정말 많은 곳에서 언급되지만, 제대로 해내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으로서, 가치점프를 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사랑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평소 보게되는 아이들은 카페에서 말썽을 부린다거나 시끄럽게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결국 제게 아이들은 어디서나 말썽 부리는 천덕꾸러기 정도로, 기피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겁니다.

10개월간 가치점프를 하면서 허리 숙여 아이들을 보게 되니, 그 제서야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들었던 소리는 말썽 부리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만의 우주를 가진 작은 사람들의 멋진 생각이었고, 저는 그 우주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에도 자신들만의 논리가 있었고, 어른들이 하는 말 하나 하나에도 기뻐하거나 상처받는 순수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가치점프를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우주를 배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마련해 준 새로운 시야를 트는 기회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준 아이들과 동료 장학샘, 아동센터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는 저도 이런 가치를 주변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나눔이 채운 나의 성장

#가치

#선순환

#성장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교육과 나눔이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10개월 동안 꾸준히 센터에 등원하며 아이들에게 배움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소통하며 아이들만의 순수함 속에서 배움을 얻기도 하고, 장학생 간담회, 가치점프 올림픽, 진로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한 걸음씩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치점프 올림픽에서는 아이들과 장학생이 함께 어우러져 활기찬 추억을 쌓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로 박람회에서는 중·고등 학생 시절의 저처럼 학업과 진로에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뻐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저는 주체적인 삶과 진로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기회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김예림**  
아이원지역아동센터



# 이륙 준비 완료! 성장의 활주로로 ✈

#도전

#성장

#점프력

#나눔

#뿌듯함

**박채희**

아이원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 4기로 활동하면서 초·중·고 학생들을 만나 다양한 에너지를 받았다. 처음에는 과연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막상 시작하고 보니 내가 가진 작은 지식이 아이들에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확실히 뿌듯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들과 함께한 '가치점프 올림픽'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순수하게 열정을 쏟으며 게임에 몰입하는 모습이 귀여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그 열정에 나도 모르게 힘이 났다.

하지만 이 활동이 단순한 나눔의 과정은 아니었다. 고등학생에게 영어 문법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멘토링 시간이 끝나고도 계속 남아서 열심히 가르쳤던 경험이 가장 크게 다가왔다. 결국 문법 하나하나씩 설명하면서 그 아이들이 '아, 이제 이해가 된다!'는 눈빛을 보내줄 때, 그때만큼 보람찼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남은 시간이 다 지나도록 밤늦게 끝까지 함께했던 그 순간,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꼈다.

개인적으로 가치점프는 나에게도 큰 도전이었고, 이 도전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다. 이 경험은 단순히 봉사나 가르침의 의미를 넘어서, 나에게 스스로 도전하고, 나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점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 친구 같은 멘토가 되자

#성장

#도전

#배움

#친구

#담임선생님



**김동현**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초등학교 2학년, 중국의 국제학교로 유학하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접했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 고려인 아이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또한 중,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공부만을 하며 보냈던 저는 멘티에게 누구보다 한글, 수학을 잘 가르칠 자신이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단순히 언어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 같은 선생님’이라는 컨셉을 잡고자 했습니다. 센터의 아이들은 오직 초등학생들만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등학생의 저 역시 선생님이라는 직위와 나이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명령을 탐탁 않아 했던 것이 기억에 남더군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면 “오, 이 친구 말은 믿을 수 있겠는걸? 나도 한 번 따라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나름 장학생 4명 중 가장 먼저 아이들과 친숙해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오지 않는 요일에도 아이들이 먼저 “동현쌤, 언제 와요?”라고 한다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뿌듯했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벚꽃놀이, 수영장, 농장 견학, VR카페, 단풍 구경, 식물 키우기, 요리 수업, AI 교육 등등 1년 간 멘토링했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기억들로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여간 사회인 멘토들로부터 저의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듣고, 저는 멘티들에게 한국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저 역시 아이들에게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공대생이지만 대학교 기초러시아어 과목을 A+을 거두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가 추구하는 비전인 배움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어 너무나 값진 1년이었습니다.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와 아이들, 인천공항, 점프 재단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 다정한 고사리손

#다정함

#순발력

#꾸준함

아이들과 함께한 10개월은 특별하고 행복했다. 그리고 더 다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그만 젤리를 먹을 때에도 고사리 손으로 자신의 몫의 일부를 건네주곤 했는데, 그 모습은 정말 귀엽고 다시 생각해 봐도 너무너무 고맙다. 공부뿐만 아니라 요리 활동이나 미술 같은 센터 내 다양한 활동도 함께했으며, 외부 체험 학습도 같이 갈 기회가 많았다. 대학생으로만 지냈다면 알 수 없었을 아이들의 순수하고 다정한 세계들을 경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그래서 아이들과 지내며 나와 다른 환경의 누군가와 소통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다.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려고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지금은 생각보다도 훨씬 가까워져 활동이 끝난다는 것이 아쉽다.

처음 활동하는 날 화랑유원지로 꽃을 보러 가서 보물 찾기도 하고 넓은 공터에서 비눗방울을 가지고 뛰어다니며 놀았던 것이 생각난다. 센터의 선생님과 동료 장학생, 아이들과 활동으로 처음 만난 날이었던 것 같다. 캔 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감자튀김을 같이 나눠먹자며 앉으라고 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센터에 오면 인사하면서 포옹해 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처음에 안아줬을 때 굉장히 감동 있었는데 지금도 만나면 안아줘서 고맙다.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이곳 아이들을 알게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가치점프 4기의 활동은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다.

이수진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 아이들과 함께 빛어낸 따뜻한 추억들

#성장

#배움

#따뜻한추억

#가치있는도전

#함께한시간

정유나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 4기 활동은 제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주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하며,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직접 돕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이들과 함께 워터파크에 다녀왔던 날입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챙기고, 저와도 스스럼없이 웃음과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순간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밝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 또한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깨닫게 되었고, 특히 이주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센터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도 느꼈습니다.

활동 기간 동안에는 저는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 같은 존재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안아주고 웃으며 인사할 때 느꼈던 따뜻함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대학생 3학년으로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가치점프 활동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선물하고, 동시에 저 자신도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이 시간이 앞으로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 세바라, 로비야, 마리아 내 멘티들 고마웠다^o^!!

#노력

#온기

#힘

#정

**김유리**

온누리다문화평생교육원

멘티들이 첫 수업을 한 날부터 불임성 있고 밝게 다가와 주었다. 공부를 싫어하지만, 센터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의와 배려를 지키며 수업을 듣는 노력을 해주었다. 더불어 멘티들이 장학생인 나에게 애정과 온기를 주고 의도치 않은 위로를 해줘서 더욱 힘을 받고 활동을 잘 끝낼 수 있었다. 멘티들에게 춤을 배워서 릴스를 찍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성대하게 했던 기억이 가장 크게 남는다. 활동 하면서 덕분에 많이 웃었고 즐거웠다. 센터 선생님, 멘티들과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소소하게 수다를 떠는 기억도 참 많은데 가끔 그 시간이 그리울 것 같다. 활동 마지막 날, 센터 선생님과 멘티들이 안아주며 진심으로 인사해 주어 내가 했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좋았고, 정이 들어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다. 가치점프를 통해 책임감과 준비성의 중요성을 알았고 소수의 사람이 집단에서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보았다. 멘티들과 같이 성장했다. 멘티들이 앞으로도 밝고 씩씩하게 성장하길 응원한다.



# 활동을 마치며

#가치

#성장

#추억

가치점프 활동을 한 24년 한 해는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스물 두 살의 제가 한 해 동안 가장 오래 지속한 활동이자,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방학 기간에도 학교에 머물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도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기억. 함께 케이크에 초를 붙고 눈사람을 만든 기억. 그 시간들이 제게 좋은 추억이 되었듯 함께한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길, 누군가의 앞날이 환해지길 진심으로 소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이 있는 공간인 안산의 여러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같은 동네지만 장장 왕복 1시간 30분이 걸리는 거리를 10개월간 다녔다는 점이 믿기지 않습니다. 가끔은 센터를 다녔던 그 거리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을 한 모든 장학생 여러분 수고하셨고 앞으로의 미래도 응원합니다 :)

**최서영**

온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 가치점프 그리고 같이점프

#같이점프

#배움

#성장

#정진

“나에게 인천공항 가치점프 4기 활동이란?” 질문에 성장, 같이, 가치, 배움, 이 네 단어로 정리하고 싶다.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조금은 내향적인 나에게는 살짝 어려웠다.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 나 스스로 아이들에게 요즘 유행인 영상을 꾸준히 챙겨 보고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나 또한 아이들에게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 배우고 변화하여 성장할 수 있었다.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 배움으로 함께 나아가는 여정, 그리고 끊임 없는 노력과 발전의 소중함을 가치점프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혼자서는 어려운 목표도 함께라면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배움을 통해 우리는 변화하고 발전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닦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것.

함께 점프하며 배우고,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치점프 4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

**최승훈**

온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 형같은 선생님, 선생님 같은 형

#유대

#배움

#성장

힘들었다. 처음엔 주 2회씩 센터에 방문하여 3시간씩 수업하는 게 꽤 부담이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아이들과 친해졌을 때쯤, 센터에 가는 것이 내겐 일상 속의 힐링일 만큼 기대가 되었다. 아이들과 만나 웃고 장난치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그러한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다. 예전엔 1월이 멀게만 느껴졌으나 정작 마지막 달이 되어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아이들이 나중에 내 나이가 되고 나서 “그 선생님 참 웃겼어” 하며 이번 가치점프 활동과 나를 추억해준다면, 이보다 더 뜻 깊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한의진**

온누리사랑 지역아동센터



# 따뜻한 포옹

#소통

#포옹

#유대

인천공항 가치점프 4기로서 2025년 3월부터 온누리지역아동 센터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하며 특별한 경험을 쌓았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는, 내가 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이들이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주며 “선생님!” 하고 반겨주던 순간들이다. 이런 따뜻한 환영 속에서 나는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얻었고, 그들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만큼 나 역시 아이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활동 전과 비교해 보면,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의 소통이 단순히 공부 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김은진

온누리지역아동센터

# 새로운 배움을 안겨줬던 아이들과의 10개월

#성장

#책임

#행복

#배움

#기회

**최보천**

온누리지역아동센터

[10개월의 여정, 책임감과 성장]

10개월 동안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다짐에서 시작한 가치점프 활동은 아이들과의 약속이 되었고, 이는 저에게 더욱 깊은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온누리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수업과 다양한 활동들은 단순한 경험을 넘어, 저에게도 성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또 다른 배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친밀감을 형성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마주하는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따뜻한 애정 덕분에, 어려움 속에서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업에서 한 학생이 “저도 장학생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순간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남겼다는 것을 실감하며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보여준 사랑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던 10개월의 여정은 제게 ‘성장’ 그 자체였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사단법인 점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달려온 모든 장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 함께 성장하는 우리

#눈높이

#포용

#성장

인천공항 가치점프를 시작할 때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는 마음이 강했지만 아이들과 함께한 8개월 동안 수업을 준비 하며 지식과 교양을 쌓고 아이들과 함께 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같이 수업하길 원하고, 같이 놀기를 원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아이들이 저를 좋아 한다고 느꼈을 때 저 또한 아이들이 있어 행복했고 같이 수업하길 원 했고 같이 노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돌아보니 8개월이란 시간동안 많이 정들어 이제 아이들과 보지 못한다는 사실 에 눈물이 고였지만 아이들과 저 모두 이전보다 성장한 것 같아 뿌듯 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한승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 웃음 가득했던 웃음꽃지역 아동센터에서의 10개월

#웃음

#행복

#성장

#뿌듯함

**김민서**

웃음꽃지역아동센터

10개월을 되돌아보니 아이들과 함께했던 귀여운 추억들만 떠오릅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담당했던 중학생 아이의 시험이 끝난 후였습니다. 멘토링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 친구는 시험지를 보여주는 걸 부끄러워하며 숨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며 맞이한 첫 시험이 끝나자마자, 시험지를 전부 찍어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점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당당하게 결과를 공유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뿌듯했습니다. 몇 번의 시험을 함께 준비하며 아이를 도울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활동하면서 힘들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해보면 아이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들, 늘 밝은 미소로 맞아주시는 센터장님, 그리고 마음 잘 맞는 장학생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더욱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인천공항공사 가치점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학생들 모두 10개월간 수고많으셨습니다 ♥



# 함께 성장하는 가치 있는 한 걸음

#배움

#성장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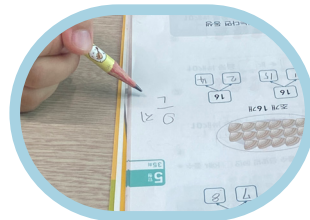
윤은지  
웃음꽃지역아동센터

저는 휴학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본 끝에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 예상과는 달리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은 단순한 교육봉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제 스스로도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오히려 배운 것이 더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작은 변화라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고,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몸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한 동료 장학생들과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며 협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역할이 어렵기도 했지만, 점점 동료들과 가까워지면서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은 봉사를 넘어, 소중한 인연과 경험을 선물해 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에서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 함께 성장한 시간

#공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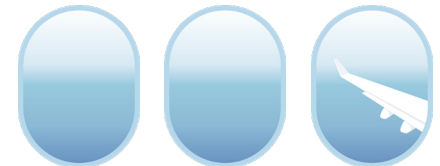
#성장

#성취감

지난 활동들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멘티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고민과 목표를 이해하며 공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신뢰를 쌓아갔는데 이를 통해 진정한 소통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멘티들에게 알맞은 조언을 하기 위해 스스로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들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멘티들이 점차 자신감을 얻고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멘티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한편 멘토링 과정에서 멘티들이 단순히 결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며 멘토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멘토링 시간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이 아닌 서로 배우고 성장하며 공감을 통해 연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로서 발전하고 싶습니다.

**김형중**

으랏차차지역아동센터



# 아이들과 함께 한 가치있는 성장

#공감

#성장

#인내

#같이의가치

가치점프 지원서를 작성할 때,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멘토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마친 지금, 그 목표를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활동 초반에는 아이들과의 배경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며 아이들을 혼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 나이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떠올려 보게 되었고, 아이들의 특성과 환경을 생각했을 때 제 기대치가 과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 다가가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은 단순히 학습을 원한 것이 아닌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일상을 나눌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활동 중반에 넘어가자 공부하기 싫어하던 아이들이 오히려 공부할 것을 찾아와 질문을 할 때였습니다. 초반과 달라진 모습에 기특하기도 했고 뿌듯한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가치점프를 통해서 공감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의 목표처럼,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멘토가 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인천 공항 가치점프 4기 활동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저 자신을 성장 시킨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이들이 선물해 준 소중한 시간이 오래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송나미

으랏차차지역아동센터



#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성장

#고민

#걱정

#극복

#성공

가치점프 멘토링으로 만난 멘티들은 나에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나는 센터에 와서 고등학생들의 국어 멘토링을 배정받았을 때 단순히 수능 국어 멘토링을 생각했다. 처음 만난 멘티들은 수능 국어 공부가 필요한 멘티도 있었지만, 대학 입시를 위해 한국어 자격증이 필요한 외국인 청소년 멘티도 있었다. 내가 공부해 본 적 없는 한국어 자격증 멘토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고민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어 자격증 문제 중 쓰기 문제를 중점으로 멘토링을 진행하며 기존의 논술 수업 방식을 한국어 자격증 쓰기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외국인 멘티가 멘토링을 통해 원고지 형태의 답안지에 한 편의 글을 완성하고, 실제 시험에서 높은 등급의 한국어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을 때 나 역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멘티들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를 토대로 점프 재단 장학생 도전을 위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며 멘티들의 목표와 꿈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진로나 진학에 대해 어려워하던 멘티들이 자신감 있게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치점프 멘토링을 통해 내가 해본 적 없는 것들, 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것들에 대해 '내가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앞으로 나의 성장에도 더 높은 점프를 시도할 발판을 얻을 수 있었다.

정소영

으랏차차지역아동센터



# 같이 점프하는 가치점프의 가치

#나눔

#교육

#성장

#지역사회

#세계시민

성민곤

인천행복한돌봄 임학지역아동센터

가치점프 활동을 되돌아보며 내가 나눈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다양한 학습 및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진로 목표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쿠키 꾸미기 재료가 품질되지거나 라오스 현지 학생들이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마주했는데, 동료 장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계획한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박식하기 그지없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수재들을 팀원으로 만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독특한 문화 체험 공간 등을 경험 하며 지역사회를 더 깊게 이해하고 내가 사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멘티들도 정서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가치점프 활동이 끝난 뒤에도 인근의 다양한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권하고자 한다. 라오스 탐방 및 이주 배경 청소년과의 교류 경험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열린 사고방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센터 측에서 귀중한 선물도 많이 주셨다. 내 이름으로 첫 명절 선물 세트를 받아봤고, 포근한 이불 선물도 받았다. 무엇보다도 큰 수확은 행복이다. 가치점프 활동을 하며 많이 웃었고 성장하는 멘티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도 느꼈다.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동료 장학생들과 임학지역아동센터 학생 및 선생님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점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함께 시도해보는 새로운 것들

#도전

#성장

#고민

손예선

인천행복한돌봄 임학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 활동은 단순한 학습지도를 넘어, 청소년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가람이, 한별이와 도서관을 방문해 고전 소설의 뒷이야기를 상상하며 글쓰기를 연습하고, 진하와 함께 챗GPT를 활용해 릴레이 소설을 작성하고, 형동이, 주혁이와는 좋아하는 축구 선수의 기사를 스크랩하며 신문 읽기를 소개하며 멘토로서 뿌듯하게 활동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혼혈’이라는 표현이 왜 혐오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공공도서관에서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대출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같은 고민거리는 멘티들을 통해 깊이 고민하게 되고, 더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활자를 통해 접하던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아니라, 직접 만난, 되려 배우기까지 하는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통해 멘티들과의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뜻 깊은지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치점프 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멘티들과 함께 고민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멘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멘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했고, 동시에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 함께 성장한 10개월간의 여정

#추억

#성장

#나눔

조은애

인천행복한돌봄 임학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 4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소통하며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을 보람차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지속해서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된 민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민화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작품을 골라주며 붓 잡는 법과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며, 덕분에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활동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준 도움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아이들에게 받은 따뜻한 말과 배움이 있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첫 만남부터 어렵던 너의 첫 고백 상담을 해주기까지

#친밀감

#유대감

#신뢰

#우정

**김지우**

천국의아이들 지역아동센터

멘티와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나의 나이를 묻기에 맞춰 보라고 한 적이 있다. 굉장히 신중히 고민하다가 장난기 하나 없는 얼굴로 내뱉은 말은 ‘29살?’이었고, 이 친구가 빈말을 할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했던 나는 꽤나 큰 상처를 받았다.

한없이 착하고 순수한 친구이지만 마음이 정말 여렸기에 이 친구와 가까워지는 것이 큰 숙제였다. 친구같이 편한 사이가 되고 싶어서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누며 노력했다.

이런 노력이 통했는지 어느 날 이 친구가 고백에 관한 고민을 털어 놓았다. 최근 썸을 타게 되었고, 고백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실 나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지만, 고백 타이밍부터 멘트까지 함께 열심히 고민하였고, 이 친구는 고백에 성공하여 커플이 되었다.

이 친구가 이렇게 사적이고 깊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 내가 바라던 것처럼 정말 친구 같은 편한 멘토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 같아 정말 기뻐다.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얻는 일이 쉽지 만은 않지만, 정말 값지고 무엇보다 뿌듯한 일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 우연의 총합은 필연

#나눔

#감동

#베를

아이들의 멘토가 되겠다는 다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큰 위로를 받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나의 많은 것을 나눠주겠다는 마음과 반대로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밝아지고 웃음이 많아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곁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행운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중간중간 서툰 제 모습에 아이들이 실망했을까 걱정도 했지만 제가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만큼 아이들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0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자 하였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나눔을 예상하며 활동을 시작했지만 활동이 끝난 지금, 아이들에게 받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 미안합니다. 저에게 10개월의 시간이 갇히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은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제가 소중한 기억으로 남길 간절히 바랍니다.

권희정

청아한지역아동센터



#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시작점이 되었던 순간

#성장통

#자기만족

#셀프칭찬

활동수기 작성을 앞두고, 10개월 간의 활동이 머리 속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사전 교육 후, 센터와의 소통과정에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점프 재단 선생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수료식까지 앞두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의 도움으로 다른 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근 1년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기 작성을 하면서 가장 처음 든 순간은 처음 센터에 방문했던 날입니다. 센터 앞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들어간 곳에서 제가 10개월간 함께했던 아이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누구지?' 라는 시선으로 쳐다보던 그 눈망울이 아직까지도 아른거립니다. 사전 교육과 센터 첫 방문 당시에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인 아이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0개월의 활동의 마침표를 찍는 날, 동료 장학생들과 각자의 경험담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이다은**

청아한지역아동센터

# 푸른마을함박도서관과 만났다

#뿌듯함

#행복

#새로운친구들

#성장

#사랑스러운아이들

인천공항 가치점프 장학생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푸른마을 함박도서관 선생님들과 도서관을 다니는 아이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작년에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OK-Friends 청소년 모국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멘토링 수업에 빠지거나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공부뿐만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러 가거나 한국 요리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제 학생들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제 경험을 나누고 제가 가진 지식을 전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학생들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롤모델이 될 수는 없더라도 좋은 선생님이자 언니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이고, 모두 함께 잘 될거라고 믿습니다.

고가이크리스티나

푸른마을함박도서관





# 행복한 동산에서 꽃피운 배움과 성장

#소통

#놀이

#발전

#자존감

#가치



**곽하연**

행복한동산지역아동센터

10개월 간 '행복한 동산 지역 아동 센터'에서 멘토로 활동하며, 다문화 초등학생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한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만남은 늘 어려워]

초반에는 서로 어색함이 가득했고, 멘토링을 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차츰 정이 쌓여가며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공부와 놀이를 적절히 섞어 멘토링 시간이 기대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은 재밌게 만들어주고 좋아하는 과목에는 자신감을 주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다양한 놀이학습]

보드게임을 좋아하여 다양한 보드게임을 경험할 수 있게 많이 가져왔고 특히, 게임을 직접 만들며 애착이 가고 더 재밌게 즐기며 게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야외활동을 통해 아이들과의 정을 깊게 쌓았습니다. 놀이터와 체육관 외에 체육대회나 민속촌, 영화관 등에서 함께한 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잊지 못할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다양한 시도]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양한 만들기 키트를 했습니다. 멘토링 전 주에 다음 주 활동을 생각하여 준비하고 계획하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더 친해졌고 추억이 많이 쌓여 알찬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치점프 활동은 저와 아이들을 같이 성장하게 했으며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 20살 첫 도전

#처음

#도전

#설렘

**이가연**  
BTC지역아동센터

얼마 전 빅뱅 지디가 컴백하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빅뱅 팬이어서 그의 복귀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저는 빅뱅의 노래 중 LAST Dance를 가장 좋아합니다. LAST Dance의 가사 중에는 “모든 게 처음이라 서툴고 설레기만 해 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제가 가치점프 장학생으로 보낸 모든 시간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어른이 되었고, 처음으로 대외활동을 해보았고, 스스로 학교 밖 세상과 부딪혀보았습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고 꽤 서툴렀지만 모든 게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보다 더 처음이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서툴렀지만 다정했고, 제가 오는 시간을 기다리며 설레주었습니다. 서로 닮았기에 함께 1년 동안 서로의 처음을 추억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서투른 모습은 줄어들었지만 서로를 향한 기다림의 시간은 여전히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활동을 마치니 설렘은 아쉬움으로 바뀌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은 꿈만 같은 시간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처음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언젠가 다시 아이들에게 돌아가 설렘을 다시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어느 20대 이야기

#청춘

#낭만

#모순



**진예빈**

BTC지역아동센터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과거를 돌아보게 하였고 현재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줬으며 미래를 꿈꾸게 해 준 저에게 많은 영감과 감동을 안겨 준 활동입니다.

BTC 지역아동센터에서의 교육 지원을 통해 저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장학생들과의 시간에 큰 흥미를 보였고, 그들의 참여와 웃음 속에서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의 추억은 저에게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경험시켜 주었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에 일 부분이 되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또한 진로 상담과 정서적 지원에서도 열정을 가졌으며, 중·고등학생들과의 야구 직관 현장체험을 통해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친화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며 서로의 의견을 살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가치점프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대의 차이와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 어린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은 저에게 귀중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위해 설명하며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이해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짧지만 길었던 장학생 생활은 저에게 삶의 소중함과 다양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활기찬 에너지는 언제나 저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이 경험은 더 나은 사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제 진로와 가치관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BTC지역아동센터에서의 추억과 인천공항 가치점프에서 만들어 준 경험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20대 청춘 이야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과거를 명심하며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 같이 한 걸음

#기억

#배움

#성장

**최윤정**  
BTC지역아동센터

활동이 끝나는 마지막 날, 한 아이가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사실 저는 붙임성이 좋은 편도 아니었고, 그 아이와는 친해질 계기도 없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 아이는 참 정이 많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예전에 들어줬던 친구 관계 고민, 함께 했던 게임이 재밌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기억인데, 그 아이는 어른인 저보다 더 또렷이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순간순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의 존재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나하나 축적되어, 결국 그 아이를,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삶을 구성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확신은 아이들의 성장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자 시점으로 10개월 동안 지켜보며 얻은 가장 큰 배움입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의 아이들은 훨씬 자랐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변했고, 장난스러운 말투나 행동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다음에 센터에 다시 들르게 된다면, 분명 그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자라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개월 동안 자란 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고 마음이 자란 만큼, 저도 어딘가 조금은 자란 것 같습니다. 점프까지는 아니어도, 같이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 장학생 활동 사진



인천공항  
가치점프